정부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해법 모색

전북 건설업계 연합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현장 목소리 전달·방안 논의

전북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택정책과, 건축정책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지역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금리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건설산업은 자재·장비·인력 등 연관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경기 침체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속도로와 국가철도망,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전북 지역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행정절차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체별로 다양한 정책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전문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기계설비업계는 자재비 상승에 대응한 금융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과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건축사 업계는 공공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설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산업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만큼, 산업 회복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지난 17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사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개소 집중 점검

전북환경청, 사고 위험 선제 차단…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

전북지방환경청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환경청은 4월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개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학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취급량과 사고 영향 범위를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노후 시설을 보유한 곳이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곳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저장탱크와 배관 등 취급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피해저감시설 유지 상태다.

또한 고인화성·부식성 물질의 적정 취급 여부,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실태 등 현장 안전수칙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초음파 두께측정기와 열화상 카메라, 휴대용 가스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해 시설 이상 여부를 정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환경청은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우기 앞두고 건설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전북지역본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관내 151개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품질·환경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농촌용수 개발,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생산기반사업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취약지역 개조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포함한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해로 인한 시설물 손상과 품질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안전·품질·환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면 사면 보호 상태와 가설 구조물의 결속 여부를 확인하고, 강풍에 대비한 비계 고정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우려가 있는 지하 구간의 양수기와 비상 발전기 작동 상태도 살핀다.

품질 분야에서는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준수 여부와 철근 부식 방지 조치 등을 점검해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관리와 배수로 정비 상태, 현장 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한다.

전북지역본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미흡 사항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글로벌 불확실성 속 전북 기업 수출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경진원, 비즈니스 인사이트 설명회 열어… 베트남·인도 거점 활용 전략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은 지난 16일 도내 수출기업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비즈니스 인사이트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높은 관심 속에 마련됐으며,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간 진행됐다. 특히 해외통상거점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의 현지 네트워크와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획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날 강연에는 인도와 베트남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분석을 제시했다. 인도 분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델리사무소장이, 베트남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하노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이 각각 시장 동향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와 중동 지역 갈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리스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이러한 변수 속에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전략적 거점으로 꼽히는 베트남과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를 연계한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인도 세션에서는 주요국과의 경제지표 비교를 통해 중단기 산업 전망을 짚고, 중동 정세의 파급 효과와 미국의 통상 압력,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등 핵심 이슈가 심도 있게 분석됐다. 이어 베트남 세션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재와 기능성 식품을 중심으로 현지 시장 트렌드와 진출 가능성이 제시됐다.

경진원은 앞으로도 해외 거점센터를 활용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친환경자원순환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전북농협이 친환경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16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2026년 친환경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농·축협 조합장 1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 이양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농가 부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고 지원이 종료될 경우 유기질비료 지원 축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 유지를 위해 국고보전 기간 연장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북농협은 친환경 농업 확대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지난 16일 '2026년 친환경자원순환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북디자인센터, 생성형 AI 디자인 교육 본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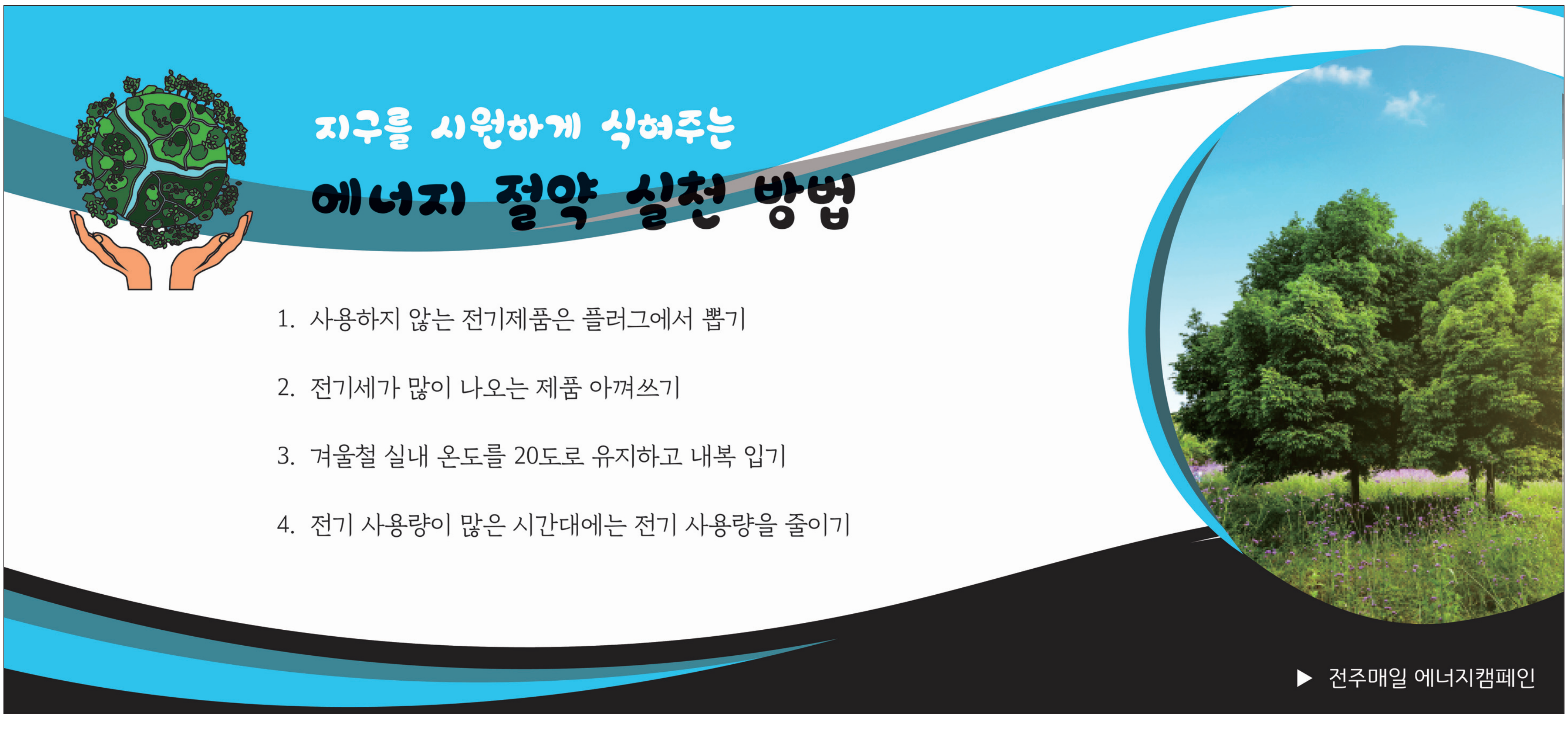
전북디자인센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무형 디자인 교육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는 도내 디자인기업 재직자와 예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디자인 실무 점프업 아카데미(1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4월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프라임관에서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생성형 AI로 완성하는 디자인 혁신'을 주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실무 시각화까지 AI 기반 디자인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가 대상은 도내 디자인기업 종사자와 디자인 관련 학과 대학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며, 모집 인원은 20~30명 규모다.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부 AI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구독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단기 특강과 심화 워크숍, 전시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육 성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